

건강한 속사람 X.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7]

-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 2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 4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6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 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 나무와 열매

신앙은 생명이다. 주님은 이에대한 이해를 위해 '나무'로 비유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생명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생명력이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다. 이에대한 증거로 '열매'를 예로 말씀하셨다.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열매가 그 나무의 존재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말씀 하시면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치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라는 비유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열매맺는 인생이란, 이 땅에 살면서 의미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삶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열매는 '성취'이며 '완성'이다. 열매로 인해 나무의 존재가 확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열매'에 관한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질문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무엇이 의미있는 인생인가? 생명의 의미란 무엇인가? 숨 쉰다고 다 생명이 아닌 것이다. 성경에의 생명이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5절). 부유함과 풍성함을 말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양분은 우리의 삶을 생명유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하나의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하자. 이런 풍성한 삶이 창세기 1:28에 기록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2. 열매를 보고 안다

[마태복음 7:16-20]

16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20절). 나무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영적원리, 즉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말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타나는 나쁜 열매는 분명히 내 안의 좋지않은 속성으로부터 맺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내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다. 왜 지속적으로 내 삶에 좋지않은 열매가 맺혀지는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왜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나무와 같아서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것이다. 부족한 열매가 보였다고해서 그 나무 자체를 버리지 않는다. 가지치기 해야할 영역, 고쳐야 할 영역이 있다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한 호흡에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긴 호흡을 배워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다. 장거리 경주란? 단거리와 달리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중요하다. 나무의 겉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분별'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결과로 그 씨앗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도 단번에 능력을 주어서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내면안에 있는 좋지 않은 육의 속성들을 그들이 열매로 직접 보게하셨다.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하셨다. 가롯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처음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가롯유다는 그 당시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화려했을 것이다. 아는 것도 많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다. 싸울 수 있는 능력에, 투쟁으로부터 오는 의지와 결연함,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정신 또한 투철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분명 고기잡이 출신, 세리 출신이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가롯유다의 열매를 보고 가롯유다 안에있는 속사람의 정체를 알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결국 그 열매로 가롯유다 마음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다. 열매를 보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도 이와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눈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즉 속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 그 사람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 속사람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양과 같은 속사람의 태도는 중요하다. 속사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없다. 그 안에 있지만 탕자와 그의 형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있다.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되셨던 예수님은 좋은 모델로 우리 앞에 계신다. 어린 양처럼 순전한 예수님의 속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정렬되어 있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올인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다. 내 뜻과 의지와 비전과 꿈도 아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4. 열매맺는 풍성한 삶 - 뿌리의 중요성

주님만을 보자. 옛 언약함에 머무려고 하는 영, 상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은 뿌리가 좋지 않다. 열매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풍성해진다. 내 수고가 아니다. 부유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하는 분은 주님의 포도나무이다.

주님의 포도나무만 풍성하다. 나의 생각나무는 육이다. 연약하다. 생각이 좁고 인간적이다. 상황에 휘둘린다. 그러나 주님의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각은 다르다. 풍성하다. 그 부유하고 풍성한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안에 거하도록 해야한다. 좁고 비판적인 생각은 주님의 포도나무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병충해와 같다. 그래서 차단해야 한다. 사탄은 언제나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마음을 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나무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날마다 계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나무는 그 나무로부터만 참 풍성함 안에 거하도록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다. 에베소서 1:17 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풍성함을 말한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거절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안에 있는 풍성함을 생각하라.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열리도록 해야한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의 성격을 알려면, 그 열매에 반대하는 육의 속성과 비교하면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큰 비밀이다.

5. 쓴뿌리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쓴뿌리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다. 반면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은 쓴뿌리가 치유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마음

1) 내 스스로 문을 닫는다.

그런데 그 문을 사람 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닫는다. 그래서 회복할 기회가 없다.

2) 계시의 영이 비추어지지 않기에,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주님은 옛일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경이롭고 놀라울 뿐이다.

3) 쓴뿌리의 열매를 가리기 위해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은 육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지만, 그 속이 쓴 마음이기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겉모습에 속는 이유는, 외형적 포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방어적 마음이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마음이 아니라 외형에 집중했음을 기억하자.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결국 방어기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된다.

4) 동기부여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다.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이다. 아무리 좋은 일, 의미있는 일이어도 마음의 동기의 뿌리가 그릇된 것으로부터 온다면, 그 열매는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죽은 열매, 못 먹는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겉은 예의바르고 공손할 수 있지만, 내면은 살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5) 치유가 중요하다

치유는 과거에 지향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미래에 방점을 둔다. 나아가게 해야한다.

6.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

[이사야 62:9-10]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시온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곳을 향해 가는 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민을 향한 비전의 기치를 들라는 것이다.

자기 치유를 향해 나아갈 때 비전이 없어진다. 자기 치유가 목표가 된다. 내 힘으로 움직여지는 열심에는 주님의 은총이 부여되지 않는다. 치유가 없이는 정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렬되지 않은 권력은 붕괴된다. 그 힘은 결국 내면의 혼돈으로 인해 파쇄될 것이다.

시온에 하늘을 향한 예배의 문이 있다. 그 곳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는 약속의 장소이다. 우리 마음안에 그 시온을 향한 게이트가 있다. 그곳에서 하늘은 열린다. 주님 마음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부유함과 풍성함이 이 땅을 아름답게 했다. 그것이 이사야 61:1절의 사역이다. 그 임재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자.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다. 쓴 뿌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계시를 받으며 나아가자.